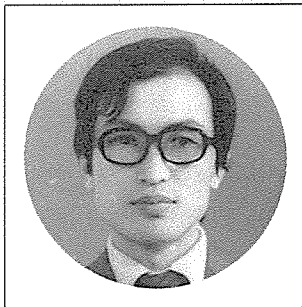


2000년대를 향한 지역사회개발 방향

앞으로 10년이 못되어 21세기의 시작인 2000년이 되지만 요즈음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는 때가 없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수천년, 수백년, 수십년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하게 될 2000년대란 時限的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이 앞으로의 지역사회개발의 방향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하나의 實踐행동이요 또 학문분야이기도한 지역사회개발은 4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발전하

# 지역간 균형과 南北統一 지향해야



鄭 址 雄

서울대 농대교수 · 지역사회개발학

여 왔지만 이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개발기여와 학문간 관심은 매우 폭발적이었다.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일정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지역사회개발은 하나의 이념이 되기도 하고 접근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종합학문이요, 실천학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이란 용어를 식민지국가의 自治능력개발로 관련시켜 처음 쓰기 시작한, 英國에서는 1950년대 초에 UN으로 하여금 모든 국가들이 자국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로서의 지역사회개발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계획, 추진하도록 자극해 준 바 있고, 각국의 전문가를 훈련, 육성시킨 바 있으며 65년부터는 「地域社會開發學會志(Community Development Journal)」를 季刊으로 내고 있기도 하다.

58년말에 정부기관으로서의 「地域社會開發中央委員會(NACOM)」를 창립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62년에 농촌지도 사업에 흡수 통합된 후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고 다시 70년대에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며 조국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운동은 세계 어느 나

라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지역사회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관심은 70년대 중반의 대학의 한 전공학과와 설립이란 결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 한때 韓國地域社會開發學會가 창립되고 76년부터 年刊「地域社會開發研究」가 출간되기도 하였고 새마을연구회가 조직도 되고 많은 대학들이 부설연구소로서의 「새마을 연구소」를 세우면서 지역사회개발관계 논문집들이 70년대말부터 무수히 나왔던 것이다. 이들이 80년대 후반기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사양화와 함께 급격히 줄어들었고 88년부터는 「지역개발」 부문의 문교부 특별연구지원금에 의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론이나 실제 양면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은 지역개발과는 구별되어 탐구되고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학과와 명칭이나 학과과정 및 연구부문에서 그 구별이 모호한 채 先占교수들의 전공과 관심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제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제시하는 地域社會開發이란 일정한 地域空間보다 그 안에서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주민(인간집단)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과정과 활동이라고 간단히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거공간이나 주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공간조성과 자원 및 경제구조를 강조하는 지역개발이나 주민들의 행동변화와 교육 및 조직화를 강조하는 지역사회개발은 서로 비슷한 학문간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 또는 주거참여를 특별히 강조하는 지역사회개발의 시각을 전제로 함을 또한 밝혀둔다.

앞으로의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이 원고에서는 그 내용을 실천면과 학문면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쓰는 방향은 「指向하는 바」로서 그 속에 기본이념이나 원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실증적인 자료에 의한 단편적 방안이기 보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자의 철학이나 시각, 견해,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또한 많을

것이다.

### □실천으로서의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지역사회개발은 이론이나 학문에 하나의 실천 또는 行動(action)으로서의 철학, 즉 行動/實踐哲學(action philosophy) 또는 지역사회철학(community philosophy) 으로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실천철학의 면에서 지역사회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그 지역사회내에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주민들이 주도하거나 대다수 참여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의 발의와 결정에 따라 시작된 주민주도사업이라면 저절로 이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행정기관이나 개발전문기관에 의하여 추진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모든 또는 다수주민의 참여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다. 또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착공간을 조성하는 지역개발 또는 정주권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 지역에 들어가 살게 될 주민들에 의하여 개발된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 관리케 하는 지역사회 개발이 계획되도록 이것 또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주민의 동원이나 차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 이러한 개발에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화, 사회민주화, 참여정치화로 발전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73년부터 한국지역사회복지회(당시는 SCF/CDF)가 발전시킨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의 山北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마침내 89년에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면으로 발전시킨 예는 그 방향의 당위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개발을 地方自治와 관련시킨 입장을 Sills, Butcher, Gregory, Conyers 등에 의하여 86년판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21 : 2)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둘째, 모든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작은 지역단위에서의 공동적, 협동적 노력에 의한 생활향상의 전략 또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하나의 세계, 하나의 커다란 국제지역사회를 지향하여 점차 그 개발지역의 크기를 광역화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사업도 농촌의 행정里洞단위에서 시작하여 이웃 里洞과 함께 協同圈새마을사업, 定住圈새마을사업으로 그 지역단위를 확대시킨 바 있고 외국인에 대한 새마을교육까지도 실시하는 국제관계의 발전을 주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국내 지역간 불균형—都農격차 및 道間격차—이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주요 당면과제가 아닐까 한다. 도시와 농촌을 共生的 관계에서, 보다 넓은 지역사회를 개발시키려 한다거나 심지어는 국제협력 또는 국제개발로 발전되는 지역사회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광역화된 지역사회개발의 과제로서는 都農 또는 지역간균형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분단된 조국의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관계 및 저개발국 지역사회개발에의 참여 및 개발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의 자발적 개발참여를 위한 動機化,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技能化, 함께 효율적으로 계획된 일을 추천해 나갈 수 있는 協同化의 방향, 즉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교육적 접근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잘 살고자 하는 성취욕구를 주민들이 갖도록 하는 의식화, 動機化는 개발기관이나 지역지도자의 적절한 사회교육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주민들이 개발의욕을 가진 후에는 실제로 그 의욕을 개발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는 技能이 필요할 터인데 이 또한 개발경험이 있는 선구자 또는 개발전문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또 여러 주민들이 일을 분담하거나 서로 힘을 합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기 위하여는 지도력 훈련 또는 조직체 운영과 참여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개발과 매우 유사한 잘살기 위한 경제조직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운영도 그 시작도 교육이요, 운영과정도 교육, 그리고 끝마무리도 교

육, 즉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을 낸다고 할만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육이란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大統領에 의하여 제창되고 이를 받은 행정교육부처에 의하여 추진되었지만 운동이 시작된 후 수년이 못되어 범국민운동으로 국민의 것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독특한 한국식 사회교육인 새마을교육의 공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 학자들로는 사회개발의 학문적기초를 구축한 Batten(1957), Biddle부처(1965)의 배경이 그러했거니와 사회교육에서 지역사회개발의 모형을 구한 Northmore(1986), 지역사회개발과 훈련 즉 사회교육을 불가분적으로 관련시킨 Longdon(1986), Pringle(1981),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발전훈련모형을 제안한 Lacky(1981),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學習의 중요성을 다룬 Nieborg와 Vos(1983)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개발은 평등화, 인간화, 복지화의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불이익을 받는 불우집단의 자활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웃과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community)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나, 발전 또는 개발의 개념동향을 볼 때, 지역사회개발에서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人間다운 삶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계층집단들이 균형 있게 살아가도록 비교적 낮은 계층집단의 활로를 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은 당연지사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여러 나라에서 농촌에 사는 농민의 自助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이들 농민들이 대체로 가난하게 살고 질병과 무지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선진국에서 도시빈민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 지역사회개발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1959년말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도 낙후된 농촌에서 시범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도 1960년대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都農間의 심화된 격차를 줄이고자, 침체된 광범한 농촌을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보게 하고

자 하는 유발 등으로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지역사회개발이 계속 이러한 평등과 복지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의 평등이나 소외집단을 강조한 학자로는 평등화를 강조한 Pagaduan과 Ferrer(1983), 지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을 다룬 Mowbray(1983), 장애집단의 인권을 다룬 Checkoway와 Norsman(1986), 소외지역 아동집단을 다룬 Finch(1983), 제3세계 농촌지역 농민을 다룬 Oxby(1983), 불우집단 개발지원정책을 다룬 Miller(1983), 도시영세민 참여개발을 다룬 Soen(1981), 가난추방을 다룬 Sinha(1980)와 Loney(1980), 실업대책을 다룬 Gallacher와 Roberts(1983), 1차 보건의료사업을 다룬 Rossi-Espagnet(1981)와 Macdonald(1983),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다룬 Furlong(1983), 아동사고예방을 다룬 Jackson(1983)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지역사회개발은 自然生態界나 환경을 최대한 보호, 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지역사회개발사업들이 근시안적인 소득증대만을 강조한 나머지 자연이나 생태계 또는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주민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거나 주변의 타주민 또는 국민전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을 주의하고 장기적인 환경보전의 안목에서 지역사회개발이 계획, 수행, 평가될 것을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사실상 지역사회개발에서 보다는 지역개발부문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서 “개발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逆機能”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사항이다. 자연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공기 그리고 景觀이다. 공장을 세워 물이나 공기가 오염된다거나 자연경관을 훼손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도 생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金肥를 많이 쓰고 따라서 농약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이는 순리와 조화의 자연에도 어긋나는 일이지만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로서 그 남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중요성은 생산에 못지않게 국토보전이라는 면에서도 경시될 수 없는 所致가 여

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고도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환경파괴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환경학 및 환경교육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제국에서는 모든 개발사업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의 보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환경청을 「環境處」로 격상시킨 것이다.

끝으로 여섯째, 지역사회개발의 文化的 적합성 및 연계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다. 역사란 하루 아침에 새로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며 오랜 전통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으로서 그 문화전통을 무시하는 지역사회개발은 모래위의 누각짓기에 불과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Sarvodaya)운동이 민간단체주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그런대로 오래 지속되고 있고 케냐의 범국가적 지역사회개발운동인 하람비(Harambee)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각각 특이한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아래 보다 큰 규모로 전개되긴 하였으나 문화적 적합성이나 연계성이란 차원에서는 다소 빈약하여 정치적 지도력의 변화와 함께 쉽게 변질되고 또 각 地方文化的 창달이나 부흥에도 이렇다 할 기여를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 본다.

앞으로의 지방문화육성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지방문화의 육성은 관광과 지방특산물 및 특성조성에 의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적합성/연계성은 어떤 고무한 인습을 답습한다는 것은 아니며 문화전통을 계승하면서 이 전통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지역사회개발을 접목시키는 장기적, 거시적 안목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에의 문화적 접근은 應用人類學 및 發展人類學이란 새로운 연구영역을 발전시키고도 하였고 일찍이 M. Mead의 연구(Star and Wagon?), Goodenough의 “변화속의 협동”(1963) 그리고 Lewis의 “민속행사와 지역사회개발”(1980) 등의 연구물들이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 학문으로서의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의 실천으로 부터 시작된 대표적 종합응용과학 또는 응용행동과학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이제는 地域社會開發學이란 독립된 학문/과학으로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그러한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연구과제와 방법상의 독자성과 과학성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의 연구과제 즉, 탐구영역과 대상은 일정한 지역사회 주민들—특히 그중에도 어렵게 사는 民草集團—의 생활향상이나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영역은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고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영역이나 과제의 범주로서 地域社會開發學의 과제여부를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된 연구과제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 지역주민이나 집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의 연구는 그 내용과 방법이 혼재된 연구방법에서 다른 학문과는 다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70년대까지는 주로 지역사회주민의 생활향상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개발학자들의 학구적 관심에 따라 연구되는 이른바 실천연구(action research) 또는 현장연구가 하나의 배전적 연구방법으로 부각된 바 있으나 최근들어 이 방법은 관련 지역주민이나 집단을 한낱 연구에 이용할 뿐이란 비판과 함께 그들을 연구에 까지도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방법이요 또한 실제적인 지역사회개발방법이기도 한 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법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참여연구법은 76년 탄자니아에서의 스완츠(M. L. Swantz)의 부락개발연구를 토대로 하여 78년 국제사회교육협회(ICAE)가 하나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세계 각국에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응용사회과학부문에서 유행처럼 확산,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이는 실천행동을 강조해

오던 지역사회개발의 학문적 성격을 굳혀 준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다. 어떠한 사회의 주민 또는 소외집단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그들과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개발/연구전문가가 돕는 민주적 결정과정 자체가 곧 지역사회를 개발할 때 그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규정짓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실천적 연구과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을 연구과정에 참여시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학습하게 하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나 집단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이 고도의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는 과학적, 계량적 접근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靜的 상태에서보다 動的 상황에서 문제의 깊은 원인—보통 계량적인 접근으로는 파헤치기 어려운—을 질적으로 찾아내면서 실제로 그 원인을 제거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냈다면 그 결과가 그야말로 실증된 이론체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반론을 자신있게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참여연구방법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나 고도의 통계방법을 적용한다는 기교 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공동의 연구소재로 삼고 함께 그 문제를 분석,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그 결과로 얻어진 연구물까지도 주민합의에 따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지역주민의 학습사항으로 보관해 두게 된다.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많은 연구들이 학자나 연구전문가의 학문적 관심분야나 또는 연구비를 제공하고 용역 및 정책연구를 그들 전문가에게 맡기는 당국의 관련기관이 그 연구주제를 암시 또는 결정하였으나 이 참여연구에서는 그러한 주제의 결정은 물론 자료의 수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행동화—예컨대 교육 또는 조직—하고 평가하기까지 연구대상을 함께 참여시켜 나가게 된다. 이러한 참여연구는 전통적 연구방법으로서는 파헤치기 어려운 사실들을 진솔하게 천착해 내고, 힘이 없어 발전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는 이른바 民草의 입장에서 참된 발전(authentic/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제로 도모한다는 데서 그야말로 지역사회개발의 이념에 알맞은 연구방법임을 인정받기에 이른 것이다.

80년대에 세계적으로 사회과학계에서 각광을 받고, 발전된 이 참여연구방법은 社會教育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교육방법으로서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사회개발의 학문적 기반을 닦기 위하여 적용되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개발 실천가는 기왕의 실천활동을 참여연구방법과 연관지어 연구대상자들과 더불어 그 결과를 체계 있게 정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개발 학자나 전문가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사회주민이나 집단과 자주 접촉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러한 참여연구를 많이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연구의 접근방법은 참여계획, 참여조직, 참여교육/훈련, 참여평가, 참여개발 등과 동일한 맥락에서의 활동을 제시하였고 마침내는 현대주민사회에서의 필수과정인 참여민주화란 용어까지 등장시키기에 이르렀다.

지역사회개발의 연구는 이와 같이 이론과 실천을 연계, 통합시키면서 그 방법자체가 연구과제가 될 수도 있는 융통성을 가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외된 집단을 위하여 함께 일하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각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쩌면 어려운 처지의 집단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려는 정의감과 情誼가 방법론의 기교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지역사회개발을 좋아하여 부귀영화를 다버리고 어렵게 그 사업에 뛰어들었던 실천가의 정신을 이제 그 학문적 기초를 다지려는 이론가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참여연구의 철학적 기초는 프레이리(Paolo Freire)로 출발되지만 이것을 과학적 연구방법과 관련시켜 정리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앞장선 학자로는 국제사회교육협회의 사무총장인 Hall(1978), 1980년 유고의 류브리야나에서 열린 제1회 국제참여연구대회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Tobias

(1981),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참여연구활동의 중심인물인 인도의 Tandon(1980) 등을 들 수 있다.

□ 맺 음 말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적 주목을 끌면서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地域社會開發은 앞으로 지역간 균형과 남북통일을 지향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의 실천가와 이론가들은 협력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나 소외된 집단을 위하여 그들을 주체로 하는 개발사업을 계획, 수행, 평가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적 조직과 의사결정 그리고 사회교육은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개발활동은 지방자치와 민주화의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은 질적 연구와 실천 및 人本主義的 觀點을 강조하는 새로운 응용 행동과학적 연구방법인 참여연구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학문적 기초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연구와 실재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에서 상호보완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주는 실천 지향 학문 또는 응용과학의 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지역사회개발은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부문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는 인간지상의 과제를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여를 위하여 이론과 실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함께 발전하는 同伴이 어느 쪽으로 부터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천가와 이론가들이 협력하여 발족시킨 韓國地域社會開發協會의 발전은 우리나라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이 글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에서 전재한 것임 ..... 편집자